

해외 ICT 표준화 동향

월간동향

2021

9월

목차

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Ecma International, TC 39(ECMAScript)의 보안 작업반(TG3) 신설	7월 27일
미국 ATIS, 다중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보고서 발간	7월 27일
W3C, 스마트시티 워크숍 결과 보고서 발간	8월 5일
IEC, 미 SES 연례회의서 미래 표준의 역할에 대해 발표	8월 5일
IEC, 5G EMF 평가 방법 표준 개정 마무리 작업 착수	8월 11일
IEEE,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활동 소개	8월 13일
FIDO 얼라이언스, “Authenticate 2021” 컨퍼런스 개최	8월 17일

II.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유럽연합 SESEC,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능형제조 표준화 지침 개정 소개	7월 30일
유럽연합, 표준화 전략(Standardisation strategy) 공개 검토 실시	6월 28일
OECD, 각국의 AI 전략 및 정책 개요 발간	8월
유럽연합 SBS, EU 표준화 전략에 대한 입장 발표	8월 10일

III.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IETF 111차 회의	7월 26일
IEEE 802.15(WSN) Plenary Session	7월 13일
ITU-T SG13(미래 네트워크) RGM(라포쳐 그룹 미팅)	7월 5일



I. 주요 ICT 표준화 기구의 활동 동향

1. Ecma International, TC39(ECMAScript) 내 보안 작업반(TG3) 신설

Ecma International의 TC39(ECMAScript)는 7월 회의를 통해 ECMAScript 언어의 보안을 담당하는 작업반(TG3)을 신설하였다. TG3는 ECMAScript 보안 모델이 진화하는 위협에 효과적임을 보장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TC39에 제안된 보안 효과에 대한 제안서 평가
- 2) ECMAScript 보안 모델에 대한 문서 작성
- 3) 개발자에게 보안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서 소개
- 4) 비공개 보안 이슈에 대한 위원회 대응 권고
- 5) 보안 프로그램 작성을 위한 우수 사례 및 권고의 유지 관리
- 6) 보급 임베딩에 대한 위험 환경 변화를 모니터링

2. 미국 ATIS, 다중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보고서 발간

미국 ATIS(미국통신산업협회)는 복잡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관리를 통합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다중 네트워크 엔터프라이즈 솔루션(Multi-Network Enterprise Solutions)’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솔루션은 종단 간 시스템의 전반적인 신뢰성, 회복성, 성능,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다.

기업은 공공 및 민간 셀룰러, 사무실의 WLAN 및 공공 WiFi 핫스팟 서비스, SD-WAN 및 애플리케이션별 특정 네트워크(예: IoT용 Lora) 등과 같이 다양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기술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네트워크 간 서로 다른 ID 제공자가 있는 자격 증명을 포함한 보안 기능, 정책, 성능 수준, 적용 범위 도메인 등이 서로 상이하여, 이로 인한 복잡성은 네트워크 관리 비용을 상승시킨다.

본 보고서는 ID 통합, 다중 경로, 네트워크 전체 정책 전파를 지원하는 방법 등 기업이 이러한 복잡성을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한다.

(참고) 보고서 원문 다운로드 링크 :

https://access.atis.org/apps/group_public/download.php/60538/ATIS-I-0000086.pdf



기사원문

<https://www.ecma-international.org/news/ecma-tc39-ecmascript-has-formed-a-new-task-group-tg3-dedicated-to-the-security-of-the-ecmascript-javascript-language/>



기사원문

<https://www.atis.org/press-releases/atis-multi-network-enterprise-solutions-report-highlights-how-to-simplify-today-complex-network-environment-and-make-it-more-secure/>

3 W3C, 스마트시티 워크샵 결과 보고서 발간

W3C(World Wide Web Consortium)은 지난 6월 25일 온라인으로 개최한 W3C 스마트시티 워크샵의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워크샵은 스마트시티 IG(Interest Group) 설립을 위해 헌장(Charter) 초안을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 웹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상호운용성과 (2) 스마트시티 서비스 지원을 위한 W3C 규격의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워크샵 기간 동안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 스마트시티에 실제로 필요한 웹 표준 개발을 주도하는 이해관계자 파악
- 스마트시티 기술에 대한 합리적 애플리케이션을 명확히함
- 스마트시티 IG 헌장 초안 개선 사항

또한, 접근성, 개인정보보호, 보안, 국제화를 포함한 포괄적인 설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하여 스마트시티 IG 헌장 초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 콘텐츠
- 스마트시티 IG에 참여하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예상 수혜자
- 참여하기에 가장 적합하고 선진적인 도시

IG 설립 후에는 아래의 사항에 대한 논의를 착수할 예정이다.

- 스마트시티를 위한 기존 기술 및 표준에 대한 조사 (기술 랜드스케이프)
- 기술(예: WoT, Automotive, Geospatial, VR/AR 등)과 스마트시티 애플리케이션(예: 접근성 개선, 방문자 가이드, 에너지 관리 등) 적용의 모범 사례
- 스마트시티에 대한 유즈케이스 및 요구사항

이를 위해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기구(예: OGC, ISO, IEC, ISO/IEC JTC1, ITU-T, BSI, ETSI, ECLASS, IETF 등)와 W3C의 기존 워킹그룹(예: Web of Things, 분산원장,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등)과 협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및 지역으로의 확산을 위해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ASEAN(아세안), Smart City Consortium을 홍보 대상으로 고려한다.



 기사원문
<https://www.w3.org/blog/news/archives/9195>

4. IEC, 미 SES(표준전문가협회)연례회의에서 미래의 표준역할 발표

IEC의 CEO 겸 사무총장은 미국 SES(표준전문가협회, Society for Standards Professionals)*의 70주년 연례회의에서 미래 표준의 역할에 대해 기조연설을 하였다.

IEC는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기구로서, IEC 표준과 적합성 평가는 코로나-19 이후의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밝히고, 다양성과 글로벌 영역 확대, 디지털화의 영향, 지속가능한 목표 등을 주제로 IEC의 활동을 소개한다.

다양성, 인재 육성, 글로벌 영역 확대

- IEC는 다양성 선언(IEC Diversity Statement)을 통해 글로벌 타당성(relevance)을 위한 포용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다양성, 성 다양성, 지리학적 다양성을 강조.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지침 및 교재 개발 중
- IEC 청년 전문가 프로그램(IEC Young Professionals Programme)을 통해 차세대 엔지니어, 과학자, 기술 전문가 육성
- 제휴국 프로그램(Affiliate Country Programme)을 통해 글로벌 영역을 확대하고 개도국, 새롭게 개발 중인 국가의 IEC 작업 참여를 지원

디지털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

- 미래의 표준 콘텐츠는 기계 판독, 실행, 해석, 궁극에는 제어가 가능한 하나의 서비스로써 변화할 것이며, IEC는 데이터 집약적 표준 개발을 위한 새로운 틀과 신속한 절차를 구현 중임
- AI 및 기타 기술들로 의한 개인정보보호, 보안 등 사회적 문제 및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며, IEC와 ISO는 인공지능 기술 및 시스템 개발 및 적용 과정에서의 위험 관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표준 개발을 위해 협력

IEC와 UN 지속가능한 목표(SDGs)

- IEC 사명 선언문(IEC everywhere for a safer, more efficient world)은 재생, 지속가능한 소스에서 생성되는 저렴한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제공하여 탈탄소 및 완전전기사회(all-electric society) 실현을 지원

* Society for standards professionals(SES, 표준전문가협회) : 미국의 표준전문가 비영리 협회. 표준화 경력 개발, 정보 교류, 표준전문가 레벨 인증 프로그램 등을 운영 (<https://www.ses-standards.org/>)



 [기사원문
https://www.iec.ch/blog/iec-discusses-its-key-role-future-standards-ses-annual-conference](https://www.iec.ch/blog/iec-discusses-its-key-role-future-standards-ses-annual-conference)

5. IEC, 5G EMF 평가 방법 표준 개정 마무리 작업 착수

IEC는 EMF(전자기장환경) 평가를 위한 IEC 62232(무선통신기지국 주변에서 인체노출량을 평가하기 위한 RF 전자기장 및 SAR 측정) 표준의 세번째 버전에 대한 마지막 작업에 착수하여 투표를 앞두고 있다. 본 개정은 5G 네트워크 구축이 글로벌하게 가속화되고, 새로운 빔포밍 기술을 통한 Advanced-5G 연결이 채택됨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TC 106(전자기장의 인체노출평가 기술위원회)에서 산-학-연, 시험소가 협업하여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00MHz에서 300GHz로 주파수 범위를 높임
- 5G 빔포밍 평가 방법
- 5G 기지국에 대한 실제 혹은 현실적인 전력 평가
- 전력 모니터링 및 제어를 보여주는 라이브 5G 네트워크의 사례 연구

6. IEEE,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활동 소개

IEEE는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술의 이해와 배포를 위해 정부 및 지방 자치 단체와 협력하고, 업체 및 시민 참여를 통해 표준 개발 추진에 도움을 주는 상하향식 방식을 모두 추진하고 있다. 특히, IEEE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IEEE Smart Cities Initiative)는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 표준 기반 솔루션 구축과 합의를 위해 워크샵, 웨비나, 컨퍼런스를 통해 협력하고 있다

IEEE Core Smart Cities 프로그램은 IEEE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의 기본 사업으로, 스마트시티 구축을 계획하고 인적, 재정적 자원을 투자하는 도시를 선정하여 지원한다. 선정된 도시는 IEEE 전문가 팀으로부터 전략적, 실용적 자문을 받아 활동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서의 시민 복지 증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기사원문

<https://www.iec.ch/blog/iec-standard-latest-5g-emf-assessment-methods-ready-voting>



 기사원문

<https://beyondstandards.ieee.org/what-a-smart-city-is-all-about/>

6. IEEE, 스마트시티 관련 표준화 활동 소개(계속)

IEEE SA(IEEE Standards Association)는 기술 고도화와 표준 개발을 촉진하여 기업의 기술 참조 구조가 최신으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며, 신뢰성, 투자 수익, 법률 및 정책 준수 측면으로도 교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요 표준화 작업은 다음과 같다.

- IEEE P1451-99 – IoT 장치와 시스템의 조화를 위한 표준 : 스마트시티들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 아울러, 장치 소유자는 자신의 개인정보와 외부 접근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신뢰성을 보장함
- IEEE 2413-2019 – IoT용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 : 도메인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시스템 상호운용성 및 기능적 호환성을 지원. IoT 시스템 개발에 대한 통합적 접근법을 통해 산업의 단편화를 줄이고 글로벌 다중-이해관계자(multi-stakeholder) 활동의 임계점(critical mass)을 생성할 것으로 기대
- IEEE P1931.1 – IoT용 실시간 현장운영촉진(Real-Time Onsite Operation Facilitation, ROOF)를 위한 아키텍처 프레임워크 표준 : IoT 디바이스와 시스템의 실시간 컨텍스트를 구축하여 스마트시티 시나리오를 이해하고, 실시간 조치를 지원하는 지속적 데이터를 생성. ROOF 컴퓨팅 및 네트워킹은 안정적인 실시간 컨텍스트 구축, 트리거 작업, 제한된 장치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함. 이를 통해 유연한 IoT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

(참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IEEE 표준과 프로젝트 리스트 목록 링크
https://engagestandards.ieee.org/smart-cities.html?utm_source=beyondstandards&utm_medium=post&utm_campaign=evergreen&utm_content=smart-city

7. FIDO얼라이언스, ‘Authenticate 2021’ 컨퍼런스 의제 발표

FIDO얼라이언스는 ‘Authentic 2021’ 컨퍼런스*를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하여 (원격참석 가능) 비즈니스 동인, 기술적 고려사항 및 최신 인증시스템 구축의 모범사례를 공유한다.

컨퍼런스의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Capital One, eBay, Facebook, Google, Morgan Stanley, Target, Verizon, Wayfair를 포함한 기업과 서비스 제공자의 구축 사례
- FIDO 인증 규격에 대한 기술적 심층 분석: IoT, 생체 인식 및 신원 검증
- 금융서비스, 전자정부, 소매업 및 통신 분야의 리더와 실무자의 수직적 관점
- 정책 랜드스케이프와 구축 고려사항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

* Authenticate 컨퍼런스 : FIDO 표준 기반 접근 방식에 중점을 둔 컨퍼런스로, CISO(정보보호최고책임자), 기업의 설계자, 제품 및 비즈니스 리더가 기업, 웹 및 정부 애플리케이션 전반에 걸쳐 최신 인증을 수용하기 위한 교육, 도구 및 모범사례를 공유.



 기사원문

<https://fidoalliance.org/fido-alliance-announces-authenticate-2021-agenda/>

II. 주요 국가의 ICT 표준화 정책 관련 동향

8. 유럽연합 SESEC,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능형제조 표준화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소개

유럽의 SESEC(유럽-중국 표준화협력프로젝트)는 중국의 공업정보화부(MIIT)에서 공개검토를 요청한 ‘국가 지능형 제조 표준화 체계 구축 지침’*을 소개하였다.

* Guidelines for the construction of national Intelligent Manufacturing Standard System(2021 Edition)_(draft for comments)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는 2021년 7월 ‘국가지능형제조표준화체계구축지침(2021년 판)’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요청 중이다. ‘국가표준화시스템구축개발계획(2016-2020)’과 ‘지능형제조개발계획(2016-2020)’에서 제시한 표준화 요구사항의 구현을 위해 MIIT와 중국표준화관리위원회(SAC)는 2018년, 2021년 개정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능형 제조 표준화 개발 촉진,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와 같은 표준화 프로젝트 구현을 지원한다.

본 지침의 첫 번째 버전은 2015년 중국전자표준화협회(CESI)*가 주도하는 ‘국가지능형제조표준화일반그룹(General group of National Intelligent Manufacturing Standardization)’에서 작성하였고, 2018년 개정 작업을 진행하였다. 지침 발표 이후, 중국은 지능형 제조 분야 285개의 국가 표준을 제정하였고, 작성 중인 표준을 포함하여 지능형 제조의 전 수명주기 및 생산망 전반에 적용되었다.

* CESI(China Electronic Standardization Institute) : 중국의 전자 및 IT 분야 표준화를 담당하며, 관련 정책을 지원. IEC/SyC SM(IEC Systems Committee Smart Energy)와 ISO/TMB/SMCC(ISO Technical Management Board Smart Manufacturing Coordination Committee)의 미러기구로서 지능형 제조 분야 표준화 활동을 진행



 기사원문

<https://sesec.eu/2021/news-events/news/sesec-policy-briefing-china-national-intelligent-manufacturing-standardization-guideline-2021/>

8. 유럽 SESEC, 중국 공업정보화부의 지능형 제조 표준화 지침 주요 개정 내용 소개(계속)

5G, AI, 디지털트윈과 같이 신기술의 빠른 발전에 따라, 새로운 제품과 모델이 출현하며 지능형 공급망 관리 등 새로운 수요와 특정 기술 분야에 대한 표준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지능형제조표준화일반그룹'은 2018년 지침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2021년 개정 초안의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본 공통 표준에서, '역량 평가'와 '역량 요구사항'으로 구성된 '인적 역량' 하위 시스템 추가, '검사 및 시험' 하위 시스템은 '시험 아이템과 시험 방법'이 각각 '검사와 시험 요구사항', '검사와 시험 방법', '검사와 시험 기술'로 변경
- 지능형 장비 표준에서, '식별 및 감지' 하위 시스템은 '센서 및 기기', '인지 및 식별 장비'로 분리, '적층 제조'에서 '적층 제조 장비'로 변경, '검사 및 시험 장비'가 추가
- 지능형 공장 표준에서, '지능형 물류' 하위 시스템이 '공장 지능형 물류'로 바뀌고, '지능형 공장 구축' 삭제. '지능형 공급망' 하위시스템 추가
- 지능형 서비스 표준에서, '기타 새로운 모드' 추가, 표준 시스템 및 개정에 따라 '운영 및 유지보수 서비스', '네트워크 협업 제조' 수정
- 지능형 지원 기술 표준에서 '디지털 트윈', '블록체인'의 하위 시스템 추가, '인공지능'과 '산업용 빅데이터' 수정
- 산업용 네트워크 표준에서 '산업용 네트워크 통합', '산업용 네트워크 자원 관리' 추가
- 산업 응용 표준에서 2018년판의 10대 핵심 영역인 선박 및 해양 엔지니어링 장비, 건축 자재, 석유 섬유, 철강, 철도, 항공 우주, 자동차, 비철금속, 전자 정보, 전력 장비 등을 포함하여 수정

9. 유럽연합, 표준화 전략(Standardisation strategy) 공개 검토 실시

유럽연합은 유럽표준화시스템(ESS, European Standardisation System)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결과 시스템 개선을 위해 표준화 전략(Standardisation strategy)을 수립 중이며, 국제적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EU 산업 생태계의 그린 및 디지털 전환에서 발생하는 표준화 요구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본 전략은 '20년 2월 EU에서 발표한 'Shaping Europe's Digital Future' 전략의 핵심 액션 중 하나이며, 산업전략(Updating the 2020 New Industrial Strategy)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주요 추진 방향은 유럽 표준화 시스템의 현대화 및 통합, 국제표준 제정을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조직화된 유럽 표준화 시스템 개발, 선제적(pre) 표준화를 위한 EU산업 자원의 활용, 공공 및 민간 분야에서의 표준 관련 교육, 표준화 규정 수정 필요성 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8월 9일까지 공개 의견을 받으며, 21년 3분기 발간을 목표로 한다.

10. OECD, 각국의 AI 전략 및 정책 개요 발간

OECD는 각국의 AI 전략 및 정책 개요를 다룬 보고서인 'An overview of national AI strategies and policies. Going Digital Toolkit note'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각국의 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한 개요를 제공하고, AI 정책 전주기(정책 설계, 정책 구현, 정책 인텔리전스, 국제 및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을 위한 접근 방식)에 걸친 추진 사항을 분석한다. 또한, 부록으로 국가 표준화 정책과 국제협력(예: CAHAI, AI HLEG, GPAI 등)에 대해 소개한다.



 기사원문

https://ec.europa.eu/info/law/better-regulation/have-your-say/initiatives/13099-Standardisation-strategy_en



 기사원문

https://goingdigital.oecd.org/data/notes/No14_ToolkitNote_AIStrategies.pdf

11. 유럽연합 SBS, EU 표준화 전략에 대한 입장 발표

유럽연합의 표준화 분야 중소기업 단체인 SBS(Small Business Standards)는 현재 의견수렴 중인 유럽연합의 표준화 전략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이 유럽의 경제 회복과 디지털/그린 전환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화와 관련된 올바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밝히며, 의견수렴 중인 유럽연합의 표준화 전략(8월 둘째주 주간동향 참조)에 소규모 비즈니스 관점에서 전략이 포함되도록 다음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 1) 조화 표준(harmonised standard)의 개발, 평가, 인용 개선
 - 중소기업이 EU 법적 요구사항을 쉽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유럽연합 표준의 적시 개발과 인용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임
- 2) 포괄성(inclusiveness) 원칙 이행
 - EU 표준화규정(1025/2012)의 필수 원칙인 포괄성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이 요구됨. 이와 관련하여, 표준을 모니터링 하고 중소기업과 관련성을 파악할 수 있는 도구 개발을 지원해야 함. 또한, CEN-CENELEC Guide 17(중소기업표준화지침) 및 SBS SME Compatibility Test for Standards(중소기업 표준호환성테스트)과 같은 도구를 홍보하여 중소기업 간 표준 활용을 보장해야 함
- 3) 중소기업의 표준 구현 지원
 - 국제표준화에서의 유럽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필요한 자원이 수반되어야 하며, 글로벌 수준의 포괄성 적용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임
 - 사전규범화(pre-normative)와 개발 단계보다 표준의 활용 단계에 중점을 둘 것을 제안함. 중소기업의 표준 구현을 위한 예산 및 지원 체계 구축과 SBS와 같은 중소기업 단체에서 표준 구현을 위한 실무가이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자국어로 번역된 표준과 중소기업을 위한 가격 보장이 요구됨



 기사원문
<https://www.sbs-sme.eu/news/smes-heart-future-european-standardisation-strategy>

III. ICT 국제표준화 전문가 활동 보고

12. IETF 111차 회의

국제회의명	장소/기간
IETF 111 Online	원격영상회의 / 21.07.26. ~ 21.07.30
쟁점사항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QUIC WG : Transport QUIC 관련 기술의 표준화 완료(RFC 8999-9002), 새로운 과제로 암호화가 필수로 요구되는 QUIC 발굴 - MASQUE WG : QUIC 기반의 HTTP/3 프로토콜을 활용하여 기존 프로토콜 기술의 제약점 해결 및 QUIC의 기반 프로토콜로 사용, 검열 방지 솔루션으로 인한 보안 및 가시성 이슈 발생의 높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TTP/3과 전송 QUIC 기술은 표준화를 주도했던 구글, 모질라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이 실제 서비스를 통한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확산하였으며, 이들은 네트워크 아키텍처에서부터 응용 프로그램에까지의 적용 확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 관련 기업 및 전문가는 이러한 흐름을 인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요구됨

13. IEEE 802.15(WSN) Plenary Session

국제회의명	장소/기간
IEEE 802.15 July Plenary Session	원격영상회의 / 21.07.13. ~ 21.07.22
쟁점사항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802.15 SG6a : PAR와 CSD에 대한 802.1, 802.3, 802.11의 comment resolution, PAR, 및 CSD 업데이트 - IEEE 802.15 SG14 : PAR와 CSD에 대한 802.1, 802.3, 802.11의 comment resolution, PAR, 및 CSD 업데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EEE 802.15 SG6a : 다수개의 RAN과 BAN 간 interference free 방식으로 IEEE 802.15.8에 적용한 동기화 MAC 개념을 기반으로 기존 표준 특허를 확장한 개념을 표준으로 제안할 예정 - IEEE 802.15 SG14 : Apple 등 기술 수요 기업의 표준화 전략을 분석하고, 표준 특허 확보가 가능한 분야를 전략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할 예정임

14. ITU-T SG13(미래 네트워크) RGM(라포처 그룹 미팅)

국제회의명	장소/기간
ITU-T SG13 RGM 국제회의	원격영상회의 / 21.07.05. ~ 21.07.16
쟁점사항	대응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비저닝을 위한 기능 구조 (Y.trust-arch), ICT 인프라 및 서비스를 위한 신뢰지수 (Y.trust-index), 트러스트 표준화 로드맵 (Y.supp.trust- roadmap) 등 다양한 신뢰 기술 기반 표준안 개발을 진행 중임 - 한국 주도 개발 양자암호통신 비즈니스모델 관련 다수의 기고서가 제출 및 채택되었으며, 지속적인 주도권 확보를 위해 디테일한 내용들을 추가하고 논의를 통해 채택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TA 표준화전략맵 ver.2018 미래 네트워크의 이용자 환경 혁신 기술 분야 중 하나로 “고신뢰네트워크” 분야로 분류되어 있고,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으므로, 핵심 기술 분야의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또한, Trust 이슈는 ITU-T SG17 및 SG20과도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국내 연구반들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함 - 한국은 ITU에서 세계 최초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화 과제를 제안/채택하고, 역시 세계 최초 양자암호 네트워크 표준인 Y.3800을 승인받는 등 가장 주도적인 표준화를 이끌고 있음. 또한 Y.3801, Y.3804 및 Y.3806까지 Global No.1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으며, 이외 Business Model, QoS, Interworking 등 총 6건의 표준화 과제를 주관하여 개발하고 있음